

「管理者」 하는 일은 設計부터

趙 成 根 韓原産 振興課長

S君은, 방사선 관리의 실무경험이 있는 技術者로서 그 方面의 人們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靑年이다. 이번에 새로운 방사선을 취급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회사로부터 강한 유혹을 받아, 그때까지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직장에서 방사선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부임해서 3개월, 그런데 이 S君은 기분이 明快하지 못하다. 회사에서의 윗사람은 방사선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고 「당신이 하고 싶은대로 서슴치 않고 하세요」라고 말해주고 있으나 어쩐지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방사선 시설의 建物도 새 것이며 안에 있는 備品도 비교적 上級의 것이 많다. 새로운 職場을 방문해 주는 친구들도 「너는 참 잘 되었구나」라고 격려해 준다. 그러나 S君은 옆의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만족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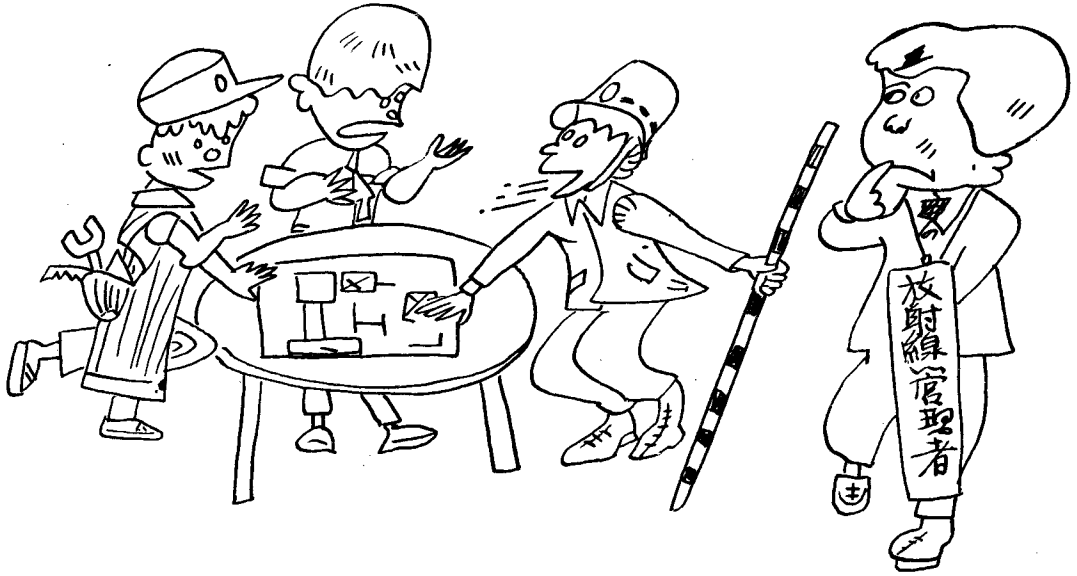
잘 생각해 보면, 不滿의 原因은 사소한 것 뿐이다. 예를 들면, 管理區域의 出入口이다. 出入하는 人數가 피이크가 되는 때는 상당히 혼잡을 가져온다. 短時間이기는 하나 한꺼번에 모여들어 분주하므로 그중에서는 귀찮아서 防護作業服을 규정해서 정해진 대로 입지도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 또, 나올 때도 손도 씻은듯 만듯 汚染

檢査도 省略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손씻기 위한 싱크도 그렇다. 좀더 넓었으면 좋을 것이며 또는 排水口도 시원치 않다. 좀더 사용하기 좋은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와 같은 것으로 했을까. 몇개만 더 있더라도 出入의 피이크時의 혼란도 훨씬 적어질텐데.

出入口를 말하자면 핸드·훗드·크로스·모니타용의 콘센트의 위치도 마땅치 않다. 모니터를 두는 곳을 고려하면 콘센트를 어디에 두면 좋을지 알 수 있을텐데……. 코오드가 바닥위에 그대로 덩굴고 있다. 우선 보기가 흉하다.

방사선관리 專用의 사무실이 없는 것은 S君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다. 個人被曝線量이라던가, 건강진단의 기록, 환경모니터링의 데이터, 법률상의 申請서류의 寫本 등 방사선관리에 관한 서류는 상당히 많다. 그러면서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증가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의 한쪽 구석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대로 몇년이 지나면 수습조차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방사선관리 專用의 倉庫에 상당하는 방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창고라든가 헛간에 상



당하는 방이 있다는 것은 방사선관리의 實務經驗을 가진 사람에서는 常識이다. 무엇에 사용하는가? 라고 하찮게 말하지 말고 余分の 방을 만들어 두는 것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일일이 말하면 끝이 없으나 하나만 더 不平을 말하자면 線源保管도 소홀하다. 그런대로 法律上의 허가를 받는 조건은 그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으나 장래를 생각해서 좀더 넓었으면 좋은 것이며, 溫度는 되었다 치더라도 溫度의 조정, 除濕시설 정도는 있었으면 싶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溫氣가 容器나 內裝을 크게 상하게 하는 原因이 될 것이다.

S君의 不平不滿은 끝이 없다. 그러나 S君에서 重大하게 생각되는 문제도 방사선관리의 지식을 가지지 않은 第三者에 설명된다고 하면 그다지 큰 문제라고 생각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자주 上司에게 말하더라도 「개미집 건드리기……」라고 생각되게 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또, S君은 이렇게도 생각했다. 자기가 놓여져 있는 조건하에서 最善을 다하는 것이 방사선 관리자로서의 할 일이다.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원인을 시설에 있다고 생각한다면가 또 이것을 말로 한다는 것은 責任을 轉嫁하고 있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너무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하자…… 라고.

그러나, S君, 당신의 不平不滿은 옳은 것이다. 그와 같은 具體的인 不平이라든가 不滿이 계속해서 머리속에 떠오르고 이것이 입으로 나온다면, 당신은 방사선 관리實務의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며, 방사선 관리에 대해서 지식과 이해가 넓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기회를 보아서 그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당신이 예들 든 여러 문제는 모두가 건물의 설계·건설단계의 문제이다. S君이 그 회사와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방사선 시설이 다된 후이다. 솔직히 말해서 全責任은 설계할 때의 會社측의 책임자에 있다. 뭐! 그 책임자가 ○○部長이라고? 職制上의 책임은 ○○부장으로 안다. 그러나 설계할 때 방사선 관리면의 具體的 검토를 누가 했을까? 建設會社에 그 大部分을 一任했다면 방사선관리 實務으로의 인식 不足도 甚한 것이다.

○○君이 担当했다……? 그것도 이상하다 ○○君은 다른 일이 本任務이며 설계할 때 방사선 管理面의 검토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의 지식으로 부수적인 일로서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담당한 ○○君도 솔직히 말해서 當感했을 것이다.

S君과 같은 有能한 방사선 관리의 實務 경험자를 초대한 것은 會社로서는 잘한 일이다. 그러나, 어차피 S君을 모셔오려면 왜 좀더 빨리 計劃·설계의 시기부터 채용하지 아니 하였을까. 그렇다면 지금 S君이 지적하고 있는 시설의 欠陥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서도 S君의 의견을 全的으로 받아 들였다고 해도 비용면에서 큰 차는 없었을 것이다. 「같은 돈을 쓰려면 좀더 有效하게」 이것은 경영의 기본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S君 會社의 경영자는 하나의 미스를 범한 것이 된다.

建物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버리면 손쉽게 고칠 수가 없다. 그리고 신축한지 얼마도 되지 않은 건물을 개조하는 것도 절차상 아마

不可能한 것이다. 實務者인 S君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S君의 노력만으로는 어떻게든 할 수가 없지 않는가.

放射線管理는, 計劃·設計의 段階에서 勝負가 정해진다. 방사선 관리에 투철한 자가 그 단계에서 고심을 했는가 어떠한가에 따라 앞으로 10年, 20年의 방사선 관리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가 결정된다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S君은, 신통찮은 얼굴로서 증얼거렸다.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조금 우울하군요. 내가 停年이 될때까지도 建物は 그대로겠지요……」

이달의 到着 資料

◇ 定期刊行物 ◇

- △ 原子力産業會新聞〈日本〉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 △ ATOM IN JAPAN 80년 1月号, 2月号
- △ BULLETIN(英國) 80년 1月号, 2月号
- △ 原子力文化〈日本〉 80년 2月号, 3月号
- △ 非破壞檢査〈日本〉 80년 1月号
- △ 原子力特報〈日本〉 80年号 VoL11, No 1
- △ ATOM〈英國〉 80년 2, 3月号

◇ 参考圖書 ◇

- △ 알기쉬운 원자력〈日本〉
- △ 원자력의 기초강좌〈日本〉 10卷
- △ 原子力人名錄〈日本〉 80年号
- △ 原子力과 環境〈日本〉

△ 原子力年監〈日本〉 79年版

△ 第13次 日本 原産年次大會 論文〈日本〉

△ 原子力 포켓북〈日本〉

△ 原子力關係 필름 일람〈日本〉

◇ 参考映画 ◇

- △ 敦賀發電所建設記錄 54分用 1970年
- △ 生活과 原子力 25分用 1974年
- △ 새로운 太陽을 찾아서 25分用 1971年
- △ 밝은 내일을 향하여 20分用 1973年
- △ 敦賀發電所 既使用燃料의 輸送 23分用 1973年
- △ 原子爐의 構造 27分用 1973年
- △ 環境모니터링 13分用 1974年
- △ 자, 원자력의 세계로 가자 20分用 1975年
- △ 原子力發電所와 核燃料 20分用 1977年

印刷業種

- 카달로그
- 스티카
- 사무용품
- 편집·도안
- 활판·옵셋
- 달력·명함

동원印刷所

代表 閔 丙 天

사무실 : (260) 0840

공 장 : (92) 6237

야간 (255) 5344